



월드컵 성공기원 개최도시 순회

# 화장실 청결 개방 캠페인

한화협 사무국

이번 캠페인은 협의회가 기간 진행해온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협의회는 선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중에서)

한국화장실 문화협의회는 4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화장실의 청결과 개방을 위하여 개최도시를 순회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협의회가 기간 진행해온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협의회는 선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국민 및 외국관광객들의 불만을 사왔던 화장실의 시설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개선된 만큼 '공공의 시설물을 내 것 같이' 사용하려는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 우리의 작은 정성이 감동월드컵의 밑거름이 되기를

협의회는 한국관광공사, 개최도시,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및 지역의 여러단체와 힘을 합쳐 이 캠페인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재덕 회장은 이 행사에 대하여 "그간의 우리의 노력을 중간결산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기울여온 우리 국민들의 작은 정성들이 세계에 전파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월드컵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이 운동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간 월드컵 개최도시는 경기장 건설, 숙박시설,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아름다운화장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왔다. 화장실업무를 담당할 부서도 만들고 담당자도 생기고 지역별로 화장실심포자움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여 시상도하고 교육도 하고..... 처음 이 일을 시작한 99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단적으로 그 당시에는 협의회회 회장인 '미소공'이 시 군 구의 행정기관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몇 바퀴 배회하다가 결국 되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수신인이 자리잡히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단위 행정기관에서 화장실문화개선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은 단지 월드컵만을 위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시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촌의 축재인 월드컵을 통해 형성된 아름다운화장실문화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이러한 행정기관에서의 노력의 결과물이 적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이 개선된 것을 생활속에서 느끼고 있고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축구전용구장과 아름다운화장실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의식에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것도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준다.

## 대구백화점앞에서 캠페인 열려

4월 18일 월드컵 성공기원 개최도시순회 화장실 청결 개방캠페인이 첫발을 내딛었다. 오전 10시 행사에 소요될 부스, 플랜카드, 아름다운화장실사진, 전단지, 조끼, 피켓 등을 봉고차에 한 차 가득 싣고 사무실을 떠나 대구백화점앞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 30분이 넘었다.(지리를 몰라 시내를 한바퀴 돌았다) 중간에 기분 좋은 휴게실에 들러 화장실도 둘러보고 식사도 하고, 작년에 한 번 행사를 했던 장소라서 눈에 익었고 또 눈에 익은 듣직한 체구의 유현종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옆에는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체험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아마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었나 보다. 짐을 펼치고 부스를 조립하는 동안에 행사를 도와줄 많은 분들이 속속 도착하셨다. 150명. 어머어마한(?) 숫자의 도우미들이 오셨다. 다들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르고 청결 개방이 큼직하게 쓰여있는 행사용 조끼복을 착용하시고 부지런히 전단지를 나누어 주셨다.

본 행사장외에 구청별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씀. 얼마나 고마운지. 기자들이 부지런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대구 엠비시앵커가 나와 시민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현장 스케치를 부지런히 하였다. 드디어 2시간 계획인 행사시간이 절반이 되지 않아서 가지고 간 전단지가 동이 났다(2800매).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많고 또 시민들이 취지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 이러면 월드컵 성공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버려진 전단지를 수거하고 주변 청소를 하기 위해 행사장 주위를 한바퀴 돌아볼 때였다. 내 눈을 의심했다. 숙달된(?) 경험에 의하면 전단지가 길에 여기 저기 뒹굴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둘러보고 또 둘러보아도 찾을 길이 없다. 주인없는 전단지를 찾고자 하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두장. 필수 필수 이럴 수가. 이러면 월드컵 성공이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대구시민의 의식이 이렇게 높을 줄이야. 이 자리를 빌어 대구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행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또 준비에 애써주신 대구시청의 천성호과장님 이상휘계장님, 유현종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 시작한 대구 캠페인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서 그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입술이 부르튼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뿌듯하다. 다른 지역들도 다 잘 될것이라 기대하며 불투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새벽 1시 파김치가 된 채 깊은 잠에 빠져든다.

다시 한 번 대구시민 여러분 땡큐.